

광주병원 뇌혈관중재센터 개소...지역 응급의료체계 활력

지역 민간의료기관 최초...뇌혈관질환 조기진단·중재적 치료 신경외과·영상·응급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협진 시스템 기반

광주지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의 뇌혈관중재센터가 개소해 지역의료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종합병원인 광주병원(대표원장 김명수)이 지난 28일 병원 2층에서 뇌혈관중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뇌혈관중재센터는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의 협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과 중재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 광주병원의 뇌혈관중재센터는 지금까지 대학병원에만 있었던 뇌혈관센터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개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호남지역의 급성 뇌혈관 질환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병원 뇌혈관중재센터는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등 급성 뇌혈관 질환에 대해 신속한 진단과 중재 시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아울

러 최신 영상 장비와 독일 지멘스의 Q Biplane 장비를 도입해 치료 정확도를 높이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한층 강화했다.

이날 개소식은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과 김상훈 광주시 북구의사회장(광주병원 내과원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의 막중한 역할을 기원했다.

이날 김명수 대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뇌혈관 질환은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중요하다"며 "이번 뇌혈관중재센터 개소를 계기로 신경외과 전문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신경외과를 병원의 중심 진료 분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뇌혈관중재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뇌혈관중재센터를 이끌어갈 장우열 센터장(신경외과 원장)은 "광주 지역에서 뇌혈관 중재 시술을



광주병원이 지난 28일 광주지역에선 최초로 대학병원을 제외한 민간의료기관에서 뇌혈관중재센터를 개소했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 시스템을 통해 중증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

겠다"고 말했다. 또 문인 북구청장은 축사에서 "광주병원이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내 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응급의학·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확대 필요”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전남대병원 허탁 교수 인터뷰 “지방수련병원 역량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진료 현실적 보상”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공급 구조 개선(전공의 정원 조정), 수가(진료비 보상) 정상화,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응급의학·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다. 분만·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이도 진료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도 필요하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해 밝혀진 수도권과 지역의 필수의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허 탁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필수 의료 인력부족 실태 진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 진료과에서 전문의가 부족해 신속한 처치가 지연될 수 있는 상태이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기 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남아 있는 의사들이 과중한 당직과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번아웃과 의료 사고 위험을 높이고, 결국 추가 이탈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된다.

필수 의료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진료 공백이 생겨 일부 병원은 해당 진료를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환자는 원하지 않아도 특정 병원, 특정 과목을 선택할 수 밖

에 없게 된다. 전공의 지원 감소로 미래 인력도 줄어들어 세대 단절이 우려된다. 특히 외과계, 응급, 중환자 분야는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라 한번 인력이 줄면 회복이 어렵다.

-서울과 지역간 필수의료 인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환자 수요가 많아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은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현재 필수의료 과목(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등)은 진료 난이도와 책임은 크지만 진료비 보상은 낮다. 서울 대형병원은 환자 회전율과 규모의 경제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지역 병원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 교육·문화 환경, 배우자 직장 문제 등에서 불리하다. 의사 입장에서 서울에서 일하는 것이 가족·생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수련병원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젊은 의사들은 서울에서 수련하고 그대로 서울에 남는 경우가 많아 지역으로의 인력 이동이 제한적이다. 지역병원에서는 의사 수 자체가 적어 응급콜이나 당직이 자주 돌아오기에 그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시급



허탁 교수

히 마련해야 할 대책은.

▲인력공급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인력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공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과목(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정원을 확대하고, 인기있는 일부 과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련병원을 지원하고, 지방 수련병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젊은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수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은.

▲고위험·고난이도 진료(분만, 응급수술, 외상 처치 등)에 대해 현실적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익보다 공공성이 가깝기에 국가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당직 인력을 지원하여 지방 병원에 공공 당직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의사들의 24시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문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를 활용해 안전을 담보하면서 진료 보조 인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 필수의료분야 의사에게 과실·행사 책임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정밀 방사선암치료 3만 건 눈앞

조선대병원이 영상유도 기반 정밀 방사선 치료기 ‘헬시온 3.1’과 ‘트루빔(TrueBeam)’을 통해 고난도 암 치료의 중심 병원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23년 정밀 방사선 치료 기기인 헬시온 3.1을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트루빔을 도입해 암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강화해 왔다. 도입 이후 치료 건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헬시온은 지난해 9월 1만 건을 돌파했으며, 트루빔은 올해 6월 기준 1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두 장비를 통한 누적 치료 건수는 총 2만 6000여 건에 달하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 9월경 3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장지영 방사선종양학과장은 “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세심한 진료로 환자 중심의 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치료 질 향상과 함께 다양한 암 종에서 치료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만6000여 건 중 가장 많은 치료가 이뤄진 부위는 흉부로 1만931건(42.0%)에 달했으며, 이 중 폐암과 유방암 환자 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골반 부위가 5570건(21.4%)으로 전립선암, 직장암, 자궁경부암 등이 주를 이뤘으며, 복부 부위는 2762건(10.6%)으로 간암, 췌장암, 담도암 등의 치료에 집중됐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화순전남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 암 전문병원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평원은 최근 2023년 한 해 동안 원발성 유방암·간암 환자를 진료한 전국 1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수술 성과뿐 아니라 환자 교육, 다학제 진료, 임종기 돌봄까지 암 치료 전 과정을 포괄해 진행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유방암 분야에서 종합점수 92.19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88.13점)을 크게

웃돌며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문인력 구성 여부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성을 입증했다.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시행 비율(81.1%)과 환자 교육 상담률(98.1%)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환자 중심 진료 역량을 보여줬다.

이번에 등급으로 나뉘 발표하지 않은 간암 평가에서도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문인력 구성(100점), 치료 전 간기능 검사와 진단검사 실시율(100점)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입니다.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1000ml x 3병(3,000ml)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